

# 순천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용 불편 최소화”

**비효율·중복 운행 문제 개선  
환승 정류장 편의시설 확대  
간선 저상버스·지선 소형버스  
홍보·의견수렴 거쳐 내년 시행**

순천시는 현행 버스 노선의 비효율·중복 운행 문제와 탑승객 수 감소, 도심 지역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준비 중이다.

시에서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노선 개편은 도심 지역에서 읍·면 소재지까지는 간선버스를 운행하고, 읍·면 소재지에서 각 마을까지는 지선 버스를 운행하는 지·간선 환승 체계가 주요 골자다.

현재 순천시 시내버스는 도심 차고지에



순천시 교통정책과장이 지난 4월 해룡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해룡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버스 노선 개편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서 출발해 송광, 주암, 낙안 등 읍·면 지역 각 마을까지 편도로 35~55km를 장거리 운행한다. 이 때문에 충분한 횡수를 운행할 수 없으며 배차간격은 1시간 30분에서 3시간에 이른다.

지역 특성상 읍·면 노선은 전통시장 방문을 위한 어르신들의 탑승이 가장 많은 오전·아침 시간대에만 아랫장, 옷장 방문을 위해 승객들이 있고, 낮 시간대는 승객이 거의 없이 운행되는 실정이다. 또한 도

심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3~5개 노선이 동일한 코스로 중복돼 이용객 대비 과도한 횡수로 운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발생한 대중교통 이용 불편 1위 사유인 긴 배차간격 문제를 해결하고 시내버스로 승용차만큼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은 탑승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선 개편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수년째 나오고 있지만 노선 체계의 변화를 어려워하는 시민도 많아 그동안 노선 개편을 시행하지 못했었다.

현재 순천시는 노선 개편 관련 1~3차 읍·면·동 주민설명회를 거쳐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 있으며, 가장 큰 불편과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환승에 대한 방안으로 읍·면 소재지 환승 정류장을 냉

난방기 등 각종 편의시설과 대규모 좌석을 갖춘 스마트쉼터로 교체하고 환승 노선 안내와 어르신 탑승 보조를 위한 환승 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간선 노선에는 차량에 오르내리기 쉬운 저상버스를 투입하고 지선 노선에는 마을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소형버스를 투입할 계획으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멀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벽지 마을 주민들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배려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고, 충분한 홍보와 의견 수렴을 통해 노선 개편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sjbae@jnilbo.com

## 순천만국가정원 ‘정원드림호’ 증편 운행

순천만국가정원이 가을을 맞아, 순천만 대표 체험시설인 정원드림호(사진) 운영을 증편한다고 밝혔다.

국가정원 사이를 가르는 동천은 고려 초기 배가 드나들던 역사적 배경이 있는 곳으로, 순천시는 이를 모티브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 배길을 복원하고, 도심권을 잇는 프로젝트로 정원드림호 운영을 시작했다.

두 해째를 맞는 정원드림호는 지난 4월 개장에 맞춰 8척의 배로 연초하는 수상퍼레이드를 핵심 콘텐츠로 도입하고, 관람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수상퍼레이드는 오는 10월까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3회(4시, 오후 5시 50분, 오후 7시) 국가정원 내 호수정원 선착장에서 출발한다. 탑승을 원하는 관람객은 선착장 인근 매표소에서 현장 매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정원드림호 수상퍼레이드는 직접 탑승하지 않더라도 3곳의 포인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일몰 무렵 조명이 켜지는 국가정원의 낙우송길에서 순천호수정원 야경과



어우러진 모습을 즐길 수 있으며, 스페이스브릿지 중앙분수대에서는 동천을 내려다보며 발 아래 지나가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동천변에서 산책을 하면서는 주변 야경과 도심지 불빛이 어우러진 형형색색의 퍼레이드를 만나는 행운도 경험할 수 있다.

시는 가을을 맞아 관람객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기존 하루 2회 진행되던 퍼레이드를 3회로 늘리고, 드림호 운행횟수도 43회로 늘려 더욱 많은 관람객이 드림호를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상설전시실 임시 휴관

**이달 말까지... 내달 재개관**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이 30일까지 박물관 상설전시실 전시개편에 따라 임시 휴관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은 ‘뿌리깊은나무’ 잡지를 창간한 한창기 선생님이 평생에 걸쳐 모은 유물 6500여 점을 보관·전시·연구하는 박물관이다. 상설전시실에는 삼국시대 토기와 기와, 고려시대 미술공예품, 조선시대 한글고전소설, 근·현대 생활민속품 등 약 4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돼 있다.

금번 전시 개편은 박물관 상설전시실 초입에 있는 삼국시대 토기 전시 공간을 재구성하여, 삼국시대 토기, 고려시대 청자, 고려시대 후기~조선시대 초기 분청사기, 조선시대 백자로 이어지는 전통 그릇의 변화를 보여주는 스토리를 담을 예정이다. 또한, 조선시대의 모습을 담은 고지도와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이 그려진

조선시대 민화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박물관은 9월1일 재개관 하며, 이를 기념하여 박물관 소장품을 활용한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한다. 또한 금년 상반기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박물관 워크북 체험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누구나 쉽게 박물관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휴관 기간 동안 스토리 있고, 짜임새 갖춘 전시 개편을 통해 관람객들이 편하게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물관은 휴관 기간 동안에도 상설전시실을 제외한 한창기실과 한옥(수오당)은 무료로 개방한다. 박물관 재개관 등 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061-749-88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는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3곳을 방문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을 적극 홍보했다. 순천시 제공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적극 홍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대상

순천시는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3곳을 방문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을 적극 홍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지난 7일 월드비전커뮤니티를 시작으로, 8일 주암담노인복지관, 21일 순천시사회복지협의회를 차례로 방문하여 진행됐다.

각 기관에서는 생활지원사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복지기동대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

했다.

또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폭염으로 인한 어르신의 온열질환 예방 및 행동요령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순천살핀안녕업을 통한 고립·위기가구 발굴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함께 이루어졌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참여하는 생활지원사들은 최일선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불편사항과 필요서비스를 잘 이해하고 있어, 이번 홍보를 통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2019년 취약계층 일상생활 불편개선과 생활안정 지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시행한 제도이며, 이 중 일상생활 불편개선은 저소득층 뿐 아니라 기초연금수급가구, 장애가구 등 폭넓게 지원한다.

순천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061-749-6285)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 챗GPT 경진대회... 28일 순천시 직원 대상

순천시는 오는 28일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챗GPT 활용 보고서 작성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



해 마련됐다.

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참가자들이 챗GPT를 활용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총 4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각 주제에 대해 챗GPT를 활용해 효율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평가는 서면평가와 온라인평가로 이뤄지며, 제출된 보고서의 서식 준수 여부, 질문 활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챗GPT에 얼마나 효율적인 질문을 했는지에 중점을 두어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며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되어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수한 성과를 낸 참가자들에게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수여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상시학습 시간이 인정된다. 상위 6명에 대한 결과는 9월 정례 회의에서 발표된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직원들이 챗GPT와 같은 최신 기술을 업무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교육과 경진대회를 통해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